

公共 圖書館 設置의 問題點

石 貞 吉

1954年 11月 19日 “뉴욕”타임스紙는 그의 論說에서 「萬若 西歐文化가 뉴욕市內 단 하나의 建物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것을 地中으로 묻어 버리게 된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自問한 다음, 이어서 그것은 뉴욕市 42番街에 있는 “뉴욕”公共圖書館이라고 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圖書館이 人類文化史上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찾아하고 있으며 가장 貴重한 寶庫라는 것을 雄辯으로 證明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重要한 圖書館이 後進國家일수록 沈滯되어 있는 것을 볼때 圖書館 發展이란 그나라 文化 發展의 尺度가 된다는 것은 明著한 事實입니다.

그러면 圖書館이란 어떻게 構成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三大構成 要素인 建物(施設), 사람(專門職), 資料(책) 등이 具備되어야만 하나의 完全한 圖書館이 形成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要件을 갖춘 圖書館이 全國의으로 普及되어야 한다는 時代的인 欲求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3月 26日字로 圖書館法 施行令이 公布되어 法의 保護를 받으면서 各級 圖書館이 設置 運營하게 되었음을 圖書館 文化 不毛의 이땅에 하나의 曙光이라 하겠습니다.

本 論

設置의 問題點

1. 敷地選定

圖書館 新築을 爲한 敷地選定에 있어서는 本館, 分館을 莫論하고 位置는 그 地域의 中心部에 定한다는 것은 英國에서는 하나의 常識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讀書가 生活化되어 가는 現實的인 環境에 놓여 있으므로 圖書館 建物이 조용한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낡은 思考方式은 漸次로 사라지고 이제는 여타사람의 利用에 便利한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共通的인 圖書館人의 見解이다.

그리고 內部 施設에 있어서는 閱覽室을 爲主로 하던 從來와는 正反對로 利用者에게 趣味를 돋우고 疑問을 풀어주는, 即 參考業務를 爲한 各種施設이 中心이 되어야 한다.

2. 新築構造

A. 基礎工事

大小 圖書館을 莫論하고 多小無理를 加하여서라도 다음에 增築할수 있도록 基礎工事의 強度를 높여야 한다.

B. 建物の美

公共圖書館 建物은 他建物에 비해서 뚜렷한 特徵이 있어야 하며 讀者를 이끄는 魅力이 있어야 한다.

C. 將來計劃

적어도 20年 동안의 奉仕와 福祉社會發展을 爲해 擴張할 수 있는 餘地를 두어야 한다.

D. 受付室의 位置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閱覽者의 出入과 管理를 爲해 受付가 있어야 한다. 受付室의 位置는 適切한 곳에 定하여야만 混亂을 피할수 있다.

E. 內部施設

內部施設은 豫算問題가 隨伴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人口 50萬 以上の 公共圖書館의 基本施設을 갖추려면

(1) 閱覽室 어린이 讀書室이 必須要件으로서 마련되어야 한다. 其 位置는 可及的이면 1層에 두어야 한다.

(2) 照明施設 螢光灯을 使用하여 눈의 疲勞를 풀어 주어야 한다.

(3) 脫濕裝置 脫濕裝置로는 自動調節裝置를 하는 것이 좋다.

(4) 換氣裝置 換氣裝置가 되어야 하며 各室마다 濾過장치가 必要하다.

(5) 防音裝置 騒音을 防止하기 爲해 天井 및 壁面에 아스다이어루, 리노다이어루(장판과 같이 방바닥에 퍼는 다이어루) 등을 調査해서 適當한 것을 使用하는 것이 좋다.

(6) 外部塗裝 周圍環境에 適合하고 倦怠를 느끼지 않는 色彩를 擇하여야 한다.

以上을 參考로 施行令에 依한 圖書館 施設이 마련될 때 그 地域社會의 生活實情과 奉仕人口數에 比較해서 公共 圖書館의 面積을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

先進國의 例를 보면 적은 圖書館일 수록 全體面積에 對한 閱覽室의 비율이 크고 큰 圖書館은 여기에 反하여 參考業務, 館外活動을 爲한 施設이 크게 차지하고

閱覽室은 비교적 적다.

이러한 面積 配分은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一般의 例이지만 特殊한 경우 獨自의 配分도 있을 수 있다.

(例, 同一廳舍內에 두개 機關이 存在할때 他 機關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해, 職員讀書室 程度)

여기 參考로 隣接 日本 公共圖書館의 面積配分 基準案을 보던

	府縣立圖書館	市立圖書館	村立, 分館	備考
열람실	20~30%	30~50%	50~80%	
사무실	10~30 "	10~20 "	10~20 "	
관외활동	10~30 "	0~10 "	0~10 "	

위의 것을 參考로 우리나라 施行令을 比較해 보면 첫째, 人口 五十萬의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基本장서 5,000卷, 年間增加數가 4,000卷으로 定하여 1968 年度까지는 最少한 23卷의 장서를 確保할 希望的인 計劃인줄 思料되오나, 그 圖書購入費를 半으로 줄인다면 卷當 400원 標準으로 2,000卷만 (半) 購入하면 年間 800,000원이 남는다.

이것을 緊急한 施設費 및 分館設置費로 積立할 것 같으면 5年 동안에 400萬원이 積金된다.

이 金額으로서 적은 圖書館 하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을 불배 急激하게 장서數를 늘이기 보다 그 豫算을 施設費에 넣는것이 公共圖書館 設置運動에 拍車를 加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現實情에 立脚한 小圖書館의 施設基準의 경우 人口 2萬에서 4萬까지의 公共圖書館 基本장서 1,000卷 以下 年間增加數 200卷 이것을 換算하면 卷當 300원씩 標準으로 60,000원의 購入費가 所要된다.

運營難에 逢着하고 있는 地方實情을 考慮해서 많은 數字라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財政問題를 解決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閱覽室 面積配分

面積 165 m² (50坪)에 열람석이 50席이고

” 1,650 m² 열람석 500席을 配置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적은 圖書館에 適用될뿐 큰 圖書館이면 參考業務, 對外活動을 爲한 施設이 더욱 要請되고 있다.

넷째, 圖書館 割當

日本の 公共圖書館은 人口 1人當 圖書費는 奉仕人口가 적으면 그 비율이 높고 奉仕人口가 많으면 圖書費는 적어진다.

英國 公共圖書館의 人口 一人當 圖書費는 大小圖書館을 莫論하고 基本圖書費는 變함이 없다. 그러나 큰 圖書館일 수록 圖書費가 높아가고 있다. 이것을 불배 英國에 있어서는 人口 2倍의 市는 2倍의 圖書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圖書館 建物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圖書館 奉仕의 據點에서 分館의 數나 크기가 두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人口 1人當의 基本圖書費가 定해질것을 바란다.

結 言

公共圖書館 設置 기준에 隨伴해서 分館設置 기준도 定해져야 한다.

一般의으로 한 圖書館의 利用範圍는 1km² 內에 居住하는 人口에 制限된것 처럼 遠距離 利用者數가 적다. 故로 地方公共圖書館은 適當한 地域에 Reading Center로서 奉仕할 수 있는 施設과 場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分館 設置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地方圖書館을 中心으로 많은 分館이 設置되어 많은 사람에게 圖書館의 惠澤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分館의 基本施設도 人口比例에 依해 法律로 定해져야 한다. 끝으로 全國的으로 公共圖書館 設立의 “봄”을 일으켜 茶房이 늘어나듯 圖書館이 늘어나고 영화관에 찾아가듯 閱覽者가 殺到되어야만 來日을 期約할수 있는 힘차고 슬기로운 社會가 이룩될 것이다.

5個年 經濟計劃으로 祖國富強을 策勵하듯 5個年圖書館 設置計劃으로 民族文化를 復興시켜 밝은 앞날을 建設해야 될것입니다. (發表者 大邱市立圖書館長)